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12월 21일
(월요일)

동북일보 2면

Y-스퀘어에 대해 구청의 봐주기 행정 절대 안돼...

박문수 의원

새정치/번3동,미아동,송중동

박문수 의원은 지난 제191회 본회의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했던 Y-스퀘어 약속 이행에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.

박 의원은 “우리 강북구 관내에 Y-스퀘어, 우리 지역신문인 동북일보에 난 기사내용이다. ‘Y-스퀘어는 과연 언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?’ 지역주민들에게 채용 기회 확대 및 소규모 부스 설치해 우선적으로 임대·운영 기회 약속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다”며 자료화면을 제시하고, 주요 요점은 다수의 소규모 부



▲ 박문수 의원.

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.

애초 사업제안서에 기재했던 그 내용이 박 의원의 판단으로는 “허위 기재이다.”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다며,

“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? 본 의원이 강북구청장과 Y-스퀘어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?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? Y-스퀘어가 강북구청 그리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”라며 하철승 부구청장의 즉답을 요청했다.

이에 하철승 부구청장은 “구청에서도 Y-스퀘어 측에서 구에 제출한 지역계획협력서를 조속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.”며, “강북구청에서 Y-스퀘어 측에 지역계획협력서를 이행하도록 독려를 한 바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하 부구청장은 “소규모 창업부스 설치라든지 기타 나머지 협력계획에 대해서도 조속히

이행이 되도록 강북구청에서 추가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”며, 힘을 같이 보태어 달라고 했다.

김동식 의장은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독려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고소·고발조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며 “구청에서 봐주기 식 그런 행정은 절대 안 된다. 구청에서 단순히 권고하면 권고하는 정도로 작은 성의를 보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법적 구속력이 얼마만큼 강한지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
서울포스트 5면

Y-스퀘어 약속 이행해야



박문수의원은 강북구 관내에 Y-스퀘어가 지역주민들에게 채용 기회 확대 및 소규모 부스 설치해 우선적으로 임대·운영 기회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실행을 하지

않고 있다며 강북구청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? 본 의원이 강북구청장과 Y-스퀘어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? Y-스퀘어가 강북구청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.

◆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- 박문수 의원

“Y-스퀘어, 채용 기회 확대 등 약속 지켜라”

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은 12월15일 열린 제195회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관내 Y-스퀘어가 지역주민들에게 채용 기회 확대 및 소규모 부스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임대·운영 기회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촉구했다.

박 의원은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Y-스퀘어가 다수의 소규모 부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밝히고 “사업 제안서에 기재했던 그 내용이 허위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

박 의원은 “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청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? 본 의원이 강북구청장과 Y-스퀘어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여야만 하

는 것인지? Y-스퀘어가 강북구청 그리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”라고 지적했다.

특히 박 의원은 하철승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Y-스퀘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.